

들의 손에 맡겼고, 우리는 바다가 비르지니의 시신을 실어 오지는 않을까 살피기 위해 이쪽 해변을 따라 수색을 벌였네. 하지만 폭풍이 당도하자 돌연 바람 방향이 바뀌어 버렸고, 우리는 이 비운의 소녀를 책임지고 매장해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가 끊었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난파 사고에서도, 유독 그 한 명이 목숨을 잃은 탓에 모두들 영혼을 두드려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 망연자실하여 슬픔에 허덕이다 그곳을 떠났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토록 신랄한 소녀의 잠담한 마지막을 보고 과연 섭리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의심했지. 너무나 그악하고 그저 부당하기만 한 악이 있어서, 현명한 사람의 소망조차 위태롭게 흔들릴 정도였으니 말이야.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풀이 자기 집으로 옮겨져도 괜찮은 상태가 될 때까지, 근처의 어느 집에 그를 데려다 놓았네. 나는 나 나름으로 비르지니의 어머니와 그녀의 벗이 이 잠담한 사건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려고 도맹그와 함께 돌아왔지. 우리가 라타니아 강 골짜기 어귀에 다다랐을 즈음, 흑인 넷넷이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만으로 엄청난 배의 잔해를 토해냈다고 말해주었네.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갔고,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들 사이에 비르지니의 시신이 있었지. 모래로 반쯤 덮여 있었는데, 자세는 죽을 때 봤던 모습 그대로였다네. 얼굴 생김새도 크게 상한 데 없이 그대로였네. 눈은 감겨